

네트워크 권력의 세계정치: 전통적인 국제정치 권력이론을 넘어서

김 상 배
서울대학교

◆ 논문 요약 ◆

전통적으로 국제정치학에서 권력은 주로 국제정치의 주요 노드(node)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물질적 자원의 보유라는 관점에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드 기반의 물질적 권력 개념만으로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권력정치의 변화를 제대로 포착할 수가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최근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서 주목받고 있는 '네트워크이론'을 원용하여 탈(脫) 노드 차원의 권력 개념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쉽고 간결한 개념의 힌트를 얻고자 하였다. 이 글이 제시하는 21세기 세계정치의 권력 개념은 '네트워크 권력'이다. 네트워크 권력은 노드 자체의 속성이나 노드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

이 아니라 노드들 간의 관계, 즉 네트워크에서 비롯되는 권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권력의 개념은 노드의 행위에서부터 비롯되었지만 역으로 노드를 제약하는 구조로도 작동하는 권력, 즉 행위자와 구조의 차원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21세기 권력의 이중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행위자와 과정, 그리고 체제의 세 가지 차원에서 네트워크 권력의 복합적인 개념을 분석하였다.

※ 주제어: 네트워크 권력, 세계정치, 지구화, 정보화, 권력변환, 국제정치이론

I. 머리말

2005년 3월 22일 노무현 대통령은 육군3사관학교 제40기 졸업식에서 한국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동북아의 세력판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연설하였다(대통령비서실, 2006, p.98). 이 연설은 당시 노무현 정부가 전통적인 한미동맹으로부터 이탈하여 중국과 미국(그리고 일본) 사이에서 위험한 저울질을 시작한다고 해석되면서 소위 ‘동북아 균형자’ 논쟁을 불러일으켰다.¹⁾ 이러한 논쟁의 과정에서 동북아 균형자론은 동북아의 판세를 잘못 읽었다는 비판을

1) 사실 ‘동북아 균형자’에 대한 언급은 2005년 2월 25일의 취임 2주년 국정연설에서 첫 선을 보이고 3월 8일 공군

면치 못했다. 한국이 아무리 균형자 노릇을 하고 싶더라도 주변 4강이 벌이는 시소게임의 방향을 바꾸어 놓기에는 그 절대국력의 규모가 체중미달이라는 비판이었다. 이보다 좀 더 근본적인 비판은 동북아 균형자론이 기반을 두고 있는 국제정치 권력관을 향해서 가해졌다. 실제로 동북아 균형자론은 19세기 국제정치 현실에서 잉태된 전통적인 권력 개념을 바탕에 깔고 있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21세기를 맞이하여 변화한 세계정치의 현실을 제대로 읽어내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하영선, 2005).

전통적으로 국제정치학에서 권력은 주로 국제정치의 주요 노드(node)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물질적 자원, 특히 군사력이나 경제력의 보유라는 관점에서 파악되었다. 이러한 물질적 권력은 자원, 영토, 인구, 무기나 군대, GNP, 에너지 생산량 등과 같이 노드의 속성이나 노드가 보유한 자원에 의해서 측정되고 평가되었다. 국제체제의 구조와 그 작동은 이러한 권력자원의 상대적 분포라는 관점에서 설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드 기반의 물질적 권력 개념만으로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권력정치의 변화를 제대로 포착할 수가 없다. 실제로 21세기 세계정치의 권력은 단순한 노드 차원을 넘어서 노드들이 구성하는 링크(link), 그리고 그 노드와 링크의 합으로서의 네트워크(network)를 배경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술·정보·지식·문화(이하 통칭하여 '지식') 등으로 대변되는 비(非) 물질적 권력자원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의 변화에 부응하여 최근 국제정치학계에서도 행위자 기반의 물질적 권력이라는 단순 개념의 차원을 넘어서는 복합적인 권력 개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²⁾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노드 차원을 넘어서는 권력변환의 본질을 쉽고 간결한 개념으로 잡아낸 시도 중의 하나가 바로 나이(Joseph S. Nye)의 소프트파워(soft power)이다(Nye, 2004). 소프트파워의 개념은 '지식' 변수에 대한 강조와 함께, 행위자의 속성이나 보유자원에서 우리나라 오는 권력의 차원을 넘어서 행위자들이 구성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력에 대한 학계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러나 소프트파워의 개념은 여전히 행위자 차원의 작위(作爲)로 환원되는 권력에 대한 논의에 머물고 있어서, 행위자의 명시적(또는 암묵적) 의지의 차원을 넘어서 작동하는 권력메커니즘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부족하다. 다시 말해 소프트파워의 개념은 행위자를 넘어서는 '구조'의 차원이나 행위자의 의지를 초월하는 '초(超) 노드'의 차원에서 작동하는 권력메커니즘을 설명하지 못한다. 요컨대, 네트워크 시대를 맞이하여 변환을 겪고 있는 세계정치의 권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제시한 소프트파워 개념보다는 좀 더 정교한 분석개념이 필요하다.³⁾

사관학교 제53기 졸업식에서 다시 언급되었다. 그러나 이들 연설에서는 주로 군(軍)의 역할만을 거론하다가 3월 22일의 연설부터는 국가전략 전반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역할을 논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2) 21세기 세계정치의 맥락에서 본 권력 개념에 대한 연구는 매우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 최근 국제정치학에서 진행된 대표적인 작업들만 뽑아보면, Keohane and Nye(1977), Nye(2004), Lerner and Walters eds.(2004), Barnett and Duvall eds.(2005), Beck(2005), Berenskoetter and Williams eds.(2007) 등을 들 수 있다. 권력 개념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세계정치 전반의 변화를 이해하려는 국내의 시도로는 하영선·김상배 편(2006)을 참조.

3)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국적인 맥락에서 소프트파워의 개념적 발전을 꾀한 작업들로는 평화포럼21 편(2005), 손열 편(2007), 김상배 편(2008), 김상배 외(2008)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최근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서 주목받고 있는 '네트워크이론'⁴⁾ 으로부터 탈(脫) 노드 차원의 권력 개념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쉽고 간결한 개념의 힌트를 얻고자 한다. 이렇게 네트워크이론과 권력이론을 접맥하는 작업은 (국제)정치학이 기여할 수 있는 고유영역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로 물리학과 사회학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네트워크이론은 권력에 대한 체계적 논의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정치학계에서도 네트워크와 권력에 대한 연구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노드 기반의 발상을 넘어서 네트워크이론 또는 '복잡계이론'을 국제정치이론에 도입하려는 몇몇 선구적인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세계정치 현실의 변화에 부응하는 권력이론의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네트워크와 권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네트워크 시대의 세계정치 권력을 '네트워크 권력(network power)'이라는 개념으로 잡아내고자 한다.⁶⁾

여기서 '네트워크 권력'이라 함은 노드 자체의 속성이나 노드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아니라 노드들 간의 '관계' 즉 네트워크에서 비롯되는 권력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네트워크 권력은 노드의 '내재적 요소'가 아니라 개별 노드들의 경계 밖에 존재하는 '외재적 요소'에 의해서 생성되고 작동하는 권력을 개념화한 것이다. 여기서 외재적 요소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노드와 노드들이 맺는 링크의 총합으로서의 네트워크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재적 요소라는 것이 무조건 초(超) 노드적으로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노드 그 자체도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구성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네트워크 권력은 개별 노드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기원을 두지만 그 작동과 영향은 노드가 아닌 네트워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권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네트워크 권력은 노드의 행동에서부터 비롯되었지만 역으로 노드를 제약하는 구조로도 작동하는 권력, 즉 행위자와 구조의 차원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권력의 이중성을 잡아내는 데 유용한 개념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권력의 개념을 분석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 글은 네트워크 권력을 '행위자(actor)'와 '과정(process)', 그리고 '체제(system)' 차원에서 작동하는 세 가지 메커니즘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가장 쉽게 이해하면 네트워크에서 비롯되는 권력은 네트워크를 구성한 노드들의 집합인 '행위자'가 발휘하는 권력을 의미한다. 또한 네트워크 권력은 네트워크라는 환경에서 특정 노드 또는 노드군(群)이 그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발휘하는 권력일 뿐만 아니라 역

4) 네트워크에 대한 이론적 소개로는 Barabási(2002), 왓츠(2004), 뷰캐넌(2003), Castells(2000a; 2000b; 2004a) 등을 참조. 또한 국내 학계에서 이루어진 네트워크이론의 소개 및 연구로는 김용학(2007)과 민병원(2005)을 참조.

5) 이러한 선구적인 시도를 벌인 연구로는 Jervis(1997), Arquilla and Ronfeldt. eds.(2001), Rosenau(2003), Braman(2006) 등을 들 수 있다.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the network theory of world politics, NTWP)'의 시각에서 본 세계정치 변화에 대한 기존 연구현황의 정리로는 김상배(2008)를 참조.

6) 네트워크 권력은 아직까지 (국제)정치학자들에게 생소한 용어인 것이 사실이다. 이 글의 논의와 유사한 맥락에서 네트워크 권력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한 기존 연구로는 Castells(2004b), Hardt and Negri(2000), Grewal(2008) 등을 들 수 있다.

으로 노드를 제약하는 '구조'로서 네트워크가 행하는 권력일 수도 있다. 더 나아가 네트워크 권력은, 행위자와 구조를 구별하기 힘든 네트워크의 속성을 고려할 때, 행위자와 구조를 모두 포괄하는 '체제' 차원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네트워크 권력을 구미 학계의 권력이론 일반에서 벌어졌던 '권력의 세 가지 얼굴'에 대한 논쟁에 빗대어 '네트워크 권력의 세 가지 얼굴(three faces of network power)'이라고 부르고자 한다.⁷⁾

한편 이 글은 '표준경쟁'의 개념을 원용하여 '세 가지 얼굴'을 지닌 네트워크 권력의 구체적 작동방식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다(김상배, 2007). 특히 네트워크 권력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표준경쟁에서 네트워크의 구도 자체가 지니는 독특한 속성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되는가에 주목하였다. 어느 세력이 이러한 네트워크의 속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네트워크 권력을 발휘하는가는 현실 세계정치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일견 노드 기반의 전통적 권력정치를 주도해온 패권세력이 새로운 권력정치에서도 역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표준경쟁'의 형태를 띠는 네트워크 시대의 권력정치에서는 아무리 '지배표준'을 장악한 패권세력이라도 전체 네트워크를 완전히 석권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패권세력의 네트워크 권력에 대항하여 '소수표준'을 고수하려는 세력들이 반론을 제기할 여지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21세기 세계정치는 패권세력과 대항세력 간에 벌어지는 '네트워크 권력의 세계정치'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제2장에서는 이 글에서 원용하는 네트워크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권력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틀을 모색하였다. 제3장과 제4장 및 제5장에서는 네트워크 권력의 개념을 각각 행위자와 과정 및 체제의 차원에서 파악하고, 그 기본적인 특성과 하위유형, 작동방식과 조직전략, 그리고 동원되는 자원의 형태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의 과정에서 주안점을 둔 것은 각각의 네트워크 권력이 현실 세계정치에서 발현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패권세력과 대항세력의 긴장관계이었다. 다시 말해, 행위자와 과정 및 체제의 차원에서 파악된 네트워크 권력이 패권세력에 의해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대항세력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네트워크 권력을 활용할 여지가 얼마나 있는지에 주목하였다. 결론에서는 이 글의 주장을 요약하고 네트워크 권력의 세계정치 시각에서 본 국가전략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였다.

II. 네트워크 권력의 분석틀

네트워크 개념의 가장 기초적인 정의는 “상호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의 집합”이다(Castell 2004b, p.3). 노드들을 상호 연결하는 것을 링크라고 하고, 이러한 링크들이 교차하는 지점에

7) 소위 '권력의 세 가지 얼굴(three faces of power) 논쟁'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비판적 검토에 대해서는 Isaac(1987)을 참조.

서 노드가 형성된다. 노드와 링크의 내용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위에는 다양한 종류의 네트워크가 존재한다. 사실 이렇게 보면 인간사 모든 것이 네트워크가 아닌 것이 없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맥, 학맥, 혈맥에서부터 교통망, 방송망, 통신망이나 상품의 판매망과 종교의 포교망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네트워크의 형태를 띠고 움직인다. 국제정치의 영역에서 관찰되는 정치군사 동맹이나 국제무역, 사람과 문화의 교류 등도 모두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빌어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 글이 탐구하는 것은 이렇게 일반적인 의미에서 파악된 '단순 네트워크'는 아니다.

이 글이 주목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에서 파악된, 그렇기 때문에 최근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복합 네트워크'의 부상이다. 전통적인 단순 네트워크 형태의 '조직(organization)'과 비교할 때, 이들 복합 네트워크는 그 아키텍처나 작동방식에 있어서 구별된다. 조직이 위계적 아키텍처를 갖는다면, 복합 네트워크의 아키텍처는 수평적이다. 조직의 작동방식이 각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의존성을 전제로 한다면, 복합 네트워크의 각 구성요소들은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다. 위계적 조직에서는 어느 한 구성요소의 제거가 조직체계 전체의 작동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 이에 비해 복합 네트워크에서는 어느 노드와 링크가 잘려 나가더라도 네트워크 전체가 붕괴되는 일은 없다. 손상된 노드와 링크를 복구하면 그만이다. 카스텔(Manuel Castells)이 복합 네트워크의 속성을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함에 있어서 유연하고(flexible), 규모의 조절이 가능하며(scalable), 재생 가능한(survivable) 실체로서 요약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복합 네트워크가 보여주는 동태적 과정에 주목했기 때문이다(Castell, 2004b, pp.4-6).

이렇게 파악되는 네트워크의 개념을 분석적으로는 어느 수준에서 이해해야 할까? 사실 네트워크라는 개념은 워낙 포괄적이어서 논자에 따라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많다. 특히 네트워크는 그 외연과 내포가 명확하지 않은 대표적인 개념 중의 하나이다. 간혹 모든 것이 다 네트워크로 설명되는 '개념적 확장'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네트워크의 개념을 행위자와 과정 및 체제의 세 가지 분석적 수준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우선 네트워크에서의 노드, 또는 이러한 노드들이 구성하는 노드의 그룹이나 네트워크 전체를 하나의 '행위자'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네트워크는 '특정한 경계'를 갖는 노드와 링크의 집합을 의미하며, 네트워크 그 자체가 '분석의 단위'이자 '행위의 단위'이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자로서의 네트워크는 그 실체가 고정된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네트워크는 부단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노드와 노드들이 연결되어 링크를 만들어 가는 동태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층위에서 이해된 네트워크란 노드의 집합이 보여주는 '행위의 패턴'인 동시에 노드의 집합에 대한 일종의 '관리양식'을 의미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일단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네트워크는 그 구성요소인 노드들의 행위를 제약하는 일종의 '구조'로서 작동하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생성된 네트워크에서 노드와 구조를 구별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노드와 구조가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가는 '체제'이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점에서 네트워크는 '자기조직화(autopoiesis)'의 메커니즘을 밝아가는 일종의 '메타 행위자(meta-

actor)’ 또는 ‘행위자-네트워크(actor-network)’ 라고 할 수 있다(Law and Mol, eds., 2002; Latour 2005).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된 네트워크의 개념은 노드의 발상에 머물고 있는 기존의 권력 개념에 대한 인식론적 비판을 가하고 네트워크 권력론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 우선, 네트워크를 행위자 차원에서 볼 경우, 네트워크 행위자의 규모, 즉 네트워크에 속한 노드의 숫자 자체가 권력으로 작동한다. 이는 노드들을 끼리끼리 많이 모으는 행위자로서의 ‘네트워크커(networker)’가 발휘하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커가 소유하는 일종의 ‘권력자원’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권력 개념과 일맥이 닿아 있다. 둘째, 네트워크를 과정 차원에서 볼 경우, 네트워크에서 링크의 유무와 형태, 특히 링크의 밀도 차이에서 권력이 발생한다. 이는 노드와 노드, 그리고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에서 접속의 유무와 정도를 통제하는 ‘스위치(switcher)’가 발휘하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네트워크는 특정 노드가 소유하는 대상이 아니라 스위치가 권력을 행사하는 전제가 되는 일종의 ‘권력환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끝으로, 네트워크를 체제 차원에서 볼 경우, 네트워크 자체의 조직 방식이나 원리로부터 권력이 발생한다. 이는 네트워크에서 노드들이 벌이는 ‘게임의 규칙’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프로그래머(programmer)’가 발휘하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프로그래밍된 네트워크는 그 자체가 자연스럽게 독자적 권력을 보유하게 되어 노드의 행동을 제약하는 일종의 ‘권력구조’로서 작동한다.

이렇게 네트워크 권력을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한 것은 분석상의 편의에 의한 것이지만 현실이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은 물론 아니다. 실제로 기존의 권력자원을 보유하고 가능한 한 많은 노드를 끌어들이며 네트워크의 규모를 불리는 자가 권력을 얻는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노드를 끌어 모을 수 있는 자가 여타 네트워크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스위칭의 역할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네트워크에서 게임의 규칙을 장악할 개연성도 높다. 게다가 일단 이렇게 프로그래밍된 네트워크는 일종의 ‘표준’으로 행세하면서 더 많은 세(勢)를 결집하게 되는 구조적 강화의 고리를 형성한다.

이렇게 네트워크 권력이 발휘되는 과정은 네트워크의 다양한 노드들을 조정함으로써 상호작용성과 호환성 및 정체성 등을 제공하는 ‘표준설정(standards-setting)’의 메커니즘을 연상시킨다.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언어나 화폐, 법률과 문화적 관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표준은 이질적인 성격의 노드들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작동케 하는 조정기능을 제공한다. 그런데 이러한 표준의 조정기능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권력현상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표준설정의 권력은 어느 노드가 물질적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생겨나는 종류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물질적 권력은 빈약하더라도 노드 차원을 넘어서 작동하는 네트워크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노드가 표준설정의 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네트워크 권력은 표준설정의 권력과 동일한 작동메커니즘을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네트워크의 속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Grewal, 2008, p.97).

첫째, 네트워크의 '개방성'이다. 이는 새로운 노드의 가입을 허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네트워크의 개방성이 높을수록 새로운 노드들이 많이 가입하여 그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여타 노드들도 다른 네트워크에 가입할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을 치르고서라도 규모가 큰 네트워크에 가입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개방성은 주로 행위자 차원에서 파악된 네트워크 권력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관건이 된다. 둘째, 네트워크의 '호환성'이다. 이는 상이한 네트워크들과의 소통을 허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네트워크의 호환성이 높을수록 새로운 노드들은 다른 표준을 굳이 수용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네트워크에 가입할 수 있다. 만약에 표준 간의 호환장치가 존재하는 경우 새로운 네트워크의 선택은 더욱 적은 스위칭비용(switching cost)을 치르고서도 가능해진다. 호환성은 주로 과정 차원에서 파악된 네트워크 권력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관건이 된다. 끝으로, 네트워크의 '유연성'이다. 이는 네트워크 자체의 변경을 허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는 네트워크 자체의 정체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기존의 표준을 수정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냐의 문제이다. 또한 기존의 네트워크 하에 기득권을 가진 노드들이 이미 투자된 매몰비용(sunk cost)의 손실을 얼마만큼 감수할 것이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유연성은 주로 체제 차원에서 파악된 네트워크 권력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관건이 된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속성이 행위자와 과정 및 체제 차원의 네트워크 권력에 일대일의 도식적인 대응관계를 갖는 것은 물론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세 가지 속성은 네트워크 권력의 실제 작동과정에서 서로 보완과 견제의 관계를 맺으면서 전략적으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개방성과 호환성은 긴장관계에 있다. 높은 개방성은 진입비용을 낮춤으로써 새로운 노드들을 끌어 모으는 유인이 된다. 그러나 동시에 호환성이 너무 많이 제공되면 끌어 모은 노드들이 계속 머물지 않고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개방성은 높게 유지하는 대신에 호환성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전략을 택하게 된다. 또한 개방성은 유연성과도 긴장관계에 있다. 만약에 어느 네트워크가 개방적인 동시에 유연성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새로이 가입하는 노드들에게는 충분한 유인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새로이 가입한 노드들이 계속해서 표준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방성과 유연성을 모두 가진 표준은 끝내 그 정체성을 잃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한편 호환성과 유연성도 긴장관계에 있다. 호환성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상이한 네트워크들이 유연성을 높이고 서로 다투아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연성이 너무 높아질 경우 네트워크의 권력적 함의가 상실될 것을 우려하여 호환성의 문턱이 낮아질 유인이 발생한다(Grewal, 2008).

이상에서 언급한 네트워크 속성의 조합은 네트워크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와 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이미 표준을 장악하고 있는 패권세력은 가장 효과적인 조합으로서 높은 개방성과 낮은 호환성, 그리고 낮은 유연성의 전략을 택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비(非) 제로섬 게임의 형태를 띠 수밖에 없는 네트워크 자체의 본질로 인해서 패권세력이 마냥 이러한 조합을 유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낮은 호환성과 낮은 유연성을 가진 지배표준에서 배제된 이해관계나 정체성을 대변하는 대항세력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항세력이 네

트위크의 속성을 조합하는 공식은 기성 패권의 그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대항세력은 높은 유연성과 높은 호환성을 요구하며 패권세력의 네트워크 전략이 안고 있는 자기모순의 틈새를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패권세력이 행사하는 네트워크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도전이 발생한다. 요컨대, 네트워크 권력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패권세력과 대항세력의 경쟁 속에서 21세기 세계정치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으로 예견된다(Gill 2003).

Ⅲ. ‘행위자’ 차원의 네트워크 권력

네트워크를 하나의 행위자로 보면, 네트워크 권력은 ‘네트워크로부터 나오는 권력(power from the network)’으로 이해된다. 이는 일종의 행위자로서의 네트워크, 즉 ‘네트워크’가 행사하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네트워크 권력은 여러 노드들이 모여서 네트워크 형태로 존재하는 행위자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지 못한 노드들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력을 말한다. 다른 말로 ‘군(群)’ 또는 ‘집(集)’을 통해서 ‘세(勢, force)’를 얻는 권력이다. 쉽게 말해, ‘끼리끼리 모이는 힘’인 셈이다. 예를 들어, 인구에 회자하는 말에 형제가 많은 집의 막내아들은 밖에 나가서 맞고 들어오는 법이 없다고 한다. 낯선 땅으로 이주해간 사람들은 동향(同鄉)의 사람들과 공동체를 형성해서 다른 이민공동체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곤 한다. 국제정치에서도 국가들 간의 동맹은 개별 국가 차원의 힘의 부족을 벌충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다. 소위 세력균형(balance of power)라는 개념이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생겨났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네트워크가 행사하는 권력은 전통적인 권력 개념과 상당히 맥이 닿아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권력이 전통적인 권력과 다른 점은 노드들의 단순한 양적 집합의 의미를 넘어서는 소위 ‘네트워크 효과’를 바탕으로 깔고 있다는 데 있다. 네트워크 효과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소위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로서의 네트워크에 대한 논의도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쉬운 예를 들자면, 인맥, 학맥, 가문 등과 같이 규모가 큰 네트워크에 속한 사람들이 발휘하는 권력이다. 소위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ies)’의 개념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보통 전화 네트워크에 비유되는 이 개념은 전화 가입자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에 비례하여 그 전화의 가치가 커지는 현상을 설명한다. 전화 자체의 물적 가치와는 별개로 전화 가입자라고 하는 외부적 요인이 전화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의 컴퓨터 네트워크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소위 ‘멧칼프의 법칙(Metcalf’s Law)’은 네트워크의 가치가 그 가입자 수의 제곱으로 증대되는 현상을 묘사하고 있다(김상배 2007).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안표준’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권력현상을 수반한다. 다시 말해, 네트워크가 행사하는 권력은 궁극적으로 ‘승자독식(勝者獨食)’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점차로 특정 표준을 채택하게 되어 이것이 일종의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를 넘어서게 되면, 앞서 언급한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네트워크들이 도태되고, 결국에는 거의 모든 사용자들이 그 표준을 채택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소위 '지배표준'이 수립된 상황에서, 네트워크들 간의 호환성이 제공되어 둘 이상의 네트워크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힘이 센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배표준은 보이지 않게 네트워크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을 배제하는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작은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이 아무리 자신들만의 표준을 보유하고 싶어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패권적 네트워크'의 표준권력이 작동하는 것이다(Grewal, 2008, pp.91-96).

이러한 과정에서 네트워크가 노드들을 끌어들이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노드의 숫자, 즉 네트워크의 규모라는 외재적 요인이 노드들을 유인하여 지배표준을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노드들을 많이 끌어 모으는 네트워크에는, 단순한 숫자 차원의 변수를 넘어서는, 그 자체만의 내재적 '매력(attractive power)'이 있기 마련이다. 사실 소프트웨어 개념을 통해서 나이가 강조하고자 했던 바는, 하드파워처럼 물질적 자원을 바탕으로 '밀어붙이는 완력' 보다는, 소프트웨어처럼 비물질적 자원에 의지하여 '끌어당기는 매력'이 노드들을 불러 모아서 네트워크의 '세(勢)'를 불리는 데 더욱 중요하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유념할 점은 네트워크의 게임에서도 주어진 표준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폭력이나 제재를 동원해서라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실행행사의 메커니즘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보면 네트워크의 권력은 나이가 말하는 하드파워와 소프트웨어의 합으로서의 소위 '스마트 파워(smart power)'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Nye, 2004).

이상에서 살펴본 네트워크의 규모나 스마트파워의 자원과 같은 양적 변수 이외에도 네트워크의 권력이 작동하는 데에는 네트워크 자체의 속성이라는 질적인 변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네트워크의 속성 중에서도 개방성에 대한 통제는 네트워크의 권력이 작동하는 기본 메커니즘이다. 높은 개방성을 기치로 네트워크의 문호를 활짝 열어 놓는 대신에, 자신들의 네트워크에 가입하지 않으면 치러야 할 기회비용을 높이는 것이다. 지배표준을 채택하여 누릴 수 있는 혜택에서 배제되리라는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물론 호환성이나 유연성의 속성도 네트워크의 권력을 강화하는 메커니즘으로 활용된다. 네트워크 형성의 초기에 어느 정도의 호환성과 유연성을 허용하는 것은 새로운 노드들을 끌어 모으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일정한 세(勢)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호환성과 유연성의 정도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그 세(勢)를 유지하는 방법이 된다. 요컨대, 네트워크의 권력을 유지하는 가장 최선의 조합은 개방성은 최대한으로 유지하고, 호환성과 유연성은 최소한으로 허용하는 전략이 될 것이다(Grewal, 2008, p.180).

그런데 개방성은 높지만 호환성과 유연성을 낮게 제공하는 지배 네트워크에의 가입은 새로운 가입자들로 하여금 이익의 침해와 정체성의 훼손을 가입비용으로 치르도록 한다. 이러한 맥락에

서 지배 네트워크에 대한 대항세력의 반론은 명분을 얻는다. 패권세력에 대응하는 대항의 전략으로 가장 쉽게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은 지배 네트워크와의 링크를 끊는 것이다. 다시 말해, 패권세력의 비(非) 간섭을 요구하며 그 손이 미치지 못하는 특수 영역에서 개별적인 독자성을 고수하는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말의 쇠국정책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고립의 전략'은 네트워크 권력에 대응하는 데 제한적인 효용성밖에 없다. 왜냐하면 다층적인 네트워크가 들어서는 세상에서 나 혼자만 고립된 채로 산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권력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강제의 권력과는 달리, 어느 정도 노드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 링크를 완전히 끊는다는 것은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배 네트워크에 대항하는 소수 노드들이 적극적인 차원에서 채택할 수 있는 전략은 소수자들끼리 뭉치는 네트워크의 전략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처럼 원래 서로 힘을 합쳐서 강자에 대항하려는 것은 약자들의 단골메뉴이다. 이러한 소수자의 연대가 지배 네트워크를 압도할 정도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세(勢)를 형성하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있다. 국제정치의 역사를 보면, 강대국들과는 상이한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는 국제 동맹과 연대가 구성된 사례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1960년대 냉전기에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초강대국의 네트워크 사이에서 제3세계를 표방하며 독자적 네트워크의 구성을 시도했던 비동맹운동을 떠올려 볼 수 있다. 1970년대 선진국 중심의 세계 정보커뮤니케이션질서에 대항하여 구성된 NWICO(New Worl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Order) 운동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례이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동아시아 담론이나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움직임도 미국 중심의 지구화 네트워크에 대항하려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소수자 네트워크 전략에 다름 아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소수자 네트워크의 전략이 국가가 아닌 민간 행위자들에 의해 추진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반(反) 지구화의 가치를 내걸고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에 대항하는 지구 시민사회운동의 네트워크 형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밖에도 환경보호나 핵확산 반대 및 인권옹호 등의 주제를 놓고 다양한 형태의 NGOs(non-governmental organizations)들이 활발한 네트워크를 벌이고 있다. 최근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해서 이러한 네트워크 행위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분산된 노드들을 연결하고 생각을 공유하며 행동을 같이하는 네트워크의 수단을 얻게 되었다(Castells, 2004, pp.34-35). 또한 인터넷이 창출한 사이버공간을 통해서 패권세력보다도 좀 더 매력있는 정보와 설득력 있는 대항담론을 제공할 기회를 얻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네트워크 자체의 규모는 작지만 훨씬 더 응집력 있는 정체성으로 무장된 대항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⁸⁾

8) 글로벌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본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는 연구로는 Hardt and Negri(2004), Benkler(2006), Khagram, Riker and Sikkink eds.(2002), Diani and McAdam eds.(2003), Chesters and Welsh(2006) 등을 참조. 네트워크 행위자의 부상에 대한 국내의 논의로는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2008)을 참조.

Ⅳ. ‘과정’ 차원의 네트워크 권력

네트워크를 과정 차원에서 보면, 네트워크 권력은 ‘네트워크상에서 발휘되는 권력(power on the network)’으로 이해된다. 네트워크상에서 권력은 무조건 노드의 덩치가 크거나 네트워크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만은 아니다. 전체 네트워크상에서 또는 두 개 이상의 네트워크 사이에서 어느 특정 노드가 차지하는 위치나 기능 또는 링크의 형태와 숫자, 통칭하여 네트워크의 구도로부터도 권력은 비롯된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트워크상에서 요충지를 차지하고 ‘통(通)하게 하는 권력이다. 이는 상이한 네트워크들의 사이에서 호환성과 상호작용성을 제공하는 ‘스위치’의 역할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역이나 교통을 맺고 끊거나 정보의 흐름을 조정하고 그 내용을 편집하는 노드들이 행사하는 권력이다. 언어나 도량형 또는 화폐 등이 담당하는 역할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노드들의 특징은 그 자체가 중요해 서라기보다는 그야말로 네트워크의 구도 속에서 그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들이다.

어떠한 노드들이 이러한 스위치의 권력을 갖는가? 물질적 권력자원을 많이 보유한 노드가 반드시 스위치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스위치의 권력은 정보나 지식과 같은 비(非) 물질적 권력자원의 흐름을 통제하는 능력에 크게 의지한다. 그렇다고 스위치의 권력이 도구적인 차원에서 정보와 지식만을 많이 보유한 노드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변 노드들로부터 신뢰를 이끌어내는 능력이다. 실제로 네트워크상에서의 흐름은 평판이 좋고 믿을 만한 노드에게로 몰리는 성향을 갖는다. 예를 들어, 네티즌들의 방문횟수가 많은 웹사이트는 정보의 양이 많은 사이트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최근과 같이 인터넷을 통한 ‘소셜 네트워킹(social networking)’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기 사이트는 다른 네티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장(場)을 마련해 주는 신뢰성을 가진 사이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네트워크에서 스위치가 행사하는 권력은 정보와 지식 변수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스위치를 네트워크상에서 권력을 발휘하는 노드 또는 노드군(群)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하였다. 그렇지만 그 스위칭의 목적이 무엇이고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의 스위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의 기준을 원용하고자 한다. 그 하나는 같은 종류의 네트워크들 간의 ‘상호작용성(interoperability)’만을 제공하느냐, 아니면 다른 종류의 네트워크들 간의 ‘호환성’까지도 제공하느냐의 기준이다. 다른 하나는 네트워크들 간 상호작용의 ‘형식’만을 바꾸어주는 스위칭이냐, 아니면 ‘내용’의 변화까지도 수반하는 스위칭이냐의 기준이다. 이러한 두 가지 기준에 입각해서 볼 때, 네트워크 권력에 대한 논의에 의미가 있는 스위치에는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은 네 가지의 유형을 생각해 볼 있다.

〈그림-1〉 스위처의 유형

	‘같은 종류’의 스위칭	‘다른 종류’의 스위칭
형식의 스위칭	〈1〉 문지기 (gatekeeper)	〈2〉 변환기 (transformer)
내용의 스위칭	〈3〉 중개인 (broker)	〈4〉 해석자 (interpreter)

첫째, 내용의 변화 없이 같은 종류의 네트워크들을 스위칭하는 경우이다. 이는 네트워크의 연결지점에서 문을 열고 닫는 ‘문지기(gatekeeper)’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물리적 차원의 상호작용성’의 제공이 관건이다. 각종 전기 스위치나 전기코드의 멀티 탭, 또는 인터넷 주소 공유기 등의 기능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일대일 스위칭이나, 일대다 스위칭이냐 아니면 다대다 스위칭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문지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지기가 행사하는 권력은 네트워크상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을 장악하고서 문을 열고 닫는 시간과 경우 및 방향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둘째, 내용의 변화 없이 다른 종류의 네트워크들을 스위칭하는 경우이다. 이는 네트워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형식(form)을 바꾸어(trans) 주는 ‘변환기(transformer)’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기술적 차원의 호환성’의 제공이 관건이다. 이는 양적인 차원에서 문턱을 낮추거나 높임으로써 호환성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제일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사례는 110V에서 220V로 전기를 승압하거나 혹은 반대로 강압하는 트랜스(속칭 도란스)이다. 이외에도 하위 네트워크들 마다 상이한 프로토콜을 채택하고 있는, 그래서 소위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a network of networks)’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에 호환성을 제공하는 라우터(router)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셋째, 내용의 변화를 수반하며 같은 종류의 네트워크들을 스위칭하는 경우이다. 이는 시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개인(broker)’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사회적 차원의 상호작용성’의 제공이 관건이다. 동일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지만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인해서 상호소통이 단절되어 있던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다양한 종류의 중개인을 떠올릴 수 있다. 미혼의 남녀를 엮어주는 중매쟁이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복덕방 등의 사례도 여기에 해당된다. 오늘날의 정보사회에서 다양하게 생산된 정보를 수집하고 편찬(compile)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포털 서비스도 이러한 종류의 중개인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내용의 변화를 수반하며 다른 종류의 네트워크들을 스위칭하는 경우이다. 이는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쓰인 텍스트의 의미를 풀어주는 ‘해석자(interpreter)’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의미 차원의 호환성'의 제공이 관건이다. 제일 쉬운 사례는 상이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돕는 번역자의 역할이다. 번역이라는 것이 단순히 자구 그대로를 옮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느 정도의 의미의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요즘 정보의 생산과 소비를 단순히 중개하는 차원을 넘어서 정보를 지식으로 편집(edit)하는 고급 웹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정보화시대의 해석자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문지기, 변환기, 중개인, 해석자 등으로 개념화되는 스위치의 역할은 주로 기존의 패권 세력의 몫이었다. 예를 들어, 21세기 세계정치에서 미국은 네트워크 간 상호작용의 기반이 되는 요충지를 장악하고 그 인터페이스를 통제하는 문지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은 정보화시대의 물리적 기반이 되는 세계 정보고속도로의 구축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 트래픽에서 명실상부한 허브(hub)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유수의 IT기업들이 위치한 미국의 실리콘벨리는 세계 정보통신산업의 '플랫폼(platform)'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다. 또한 지구 언어로서의 영어나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는 상이한 네트워크들의 사이에서 호환성을 제공하는 스위치이자, 여기서 더 나아가 그야말로 언어와 통화 분야의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s)이다. 이외에도 미국이 21세기 정치군사질서나 무역금융질서에서 질적인 차원의 스위칭으로 이해되는 중개와 해석의 기능을 제공하는 역할은 무수히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21세기 패권국으로서의 미국이 담당하는 스위치의 역할이 하드파워이자 소프트파워로서의 미국의 국력에서 나온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네트워크 권력의 시각에서 특별히 주목하는 부분은 네트워크 자체의 속성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특히 스위치의 전략은 호환성의 통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높은 호환성을 제공하는 네트워크는 많은 노드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그러나 높은 호환성의 제공은 실제로 가입하지 않고도 그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혜택에 무임승차하는 행위를 허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배 네트워크에로의 길목을 장악한 스위치의 입장에서는 호환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격에 제한을 두거나, 아니면 높은 비용을 치러야만 호환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호환성의 제공과 거부는 스위치가 활용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실제로 스위치가 동원하는 호환성의 전략은 네트워크상의 선택지에 대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마치 동물을 우리에 가두기 위해 몰아넣는 협곡처럼 작동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스위치의 권력은 앞서 언급한 네트워크의 권력보다 좀 더 구조적인 차원에서 권력을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라는 권력환경은 대항세력에게도 스위치의 권력을 행사할 기대를 걸게 한다.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아무리 약자라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하나의 노드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구도가 어떻게 짜이느냐에 따라서 언제라도 스위치가 될 가능성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항세력의 스위치 전략은 '차단의 전략'이다. 즉, 네트워크 전체의 작동을 교란시킬 목적으로 자신이 담당하는 노드를 희생하여 네트워크 간의 연결 스위치를 끊음으로써 저항의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스위칭의 차단은 항공시스템이나 컴퓨터 네트워크, 그리고 각종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등과 같은 네트워크 사회의 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도전으로 나타

날 수 있다. 아무리 힘이 없는 노드라도 네트워크의 한 노드인 이상에 그 노드를 차단하는 효과는 없지 않다. 그러나 정보화시대의 쇄국정책과도 같은 이러한 무조건적인 차단의 전략은 전혀 설득력을 얻지 못할 것이 뻔하다.

따라서 대항세력도 차단의 전략보다는 좀 더 건설적인 차원에서 스위처의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배 네트워크에 대한 무조건적 단절이나 일방적 철회를 시도하기보다는, 지배 네트워크에서 배제되는 소수의 노드들을 역으로 끌어안는 전략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지배 네트워크가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네트워크 권력의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고 좀 더 바람직한 네트워크의 비전과 실현 방법을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패권세력의 네트워크 권력을 무장 해제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은 패권세력이 제시하는 스위칭과는 다른 대안적 채널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자원배분 방식과 선택지의 구도를 바꿈으로써 패권적 채널이 누려온 특권을 거부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이렇게 대안적 채널이 제공될 여지가 있는 분야에서는 지배표준이 소수표준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력이 덜 파괴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대안적 채널이 기존에 패권이 제공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그리고 오히려 더욱 개선된 형태의 보편적 설득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사실이다(Grewal, 2008, p.172).

머리말에서 언급한 동북아 균형자론이 봉착했던 반론을 생각해 보면, 약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스위처의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중견국으로서의 한국은 앞서 언급한 소수자 연대의 하위 네트워크 전략과 같은 소극적 역할론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스위처의 국가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까? 미국(그리고 일본)과 중국이라는 두 개의 비대칭적인 네트워크 사이에서 제시할 수 있는 대안적 채널의 내용은 무엇일까? 만약에 그러한 대안적 채널의 구성이 가능하다면, 주변 국가들이 한국을 믿을만한 스위처로 간주하고 그 주위에 모이게 할 방법은 무엇일까? 이렇게 동북아에서 경합하는 네트워크들 사이에서 길목을 장악하려는 스위처의 전략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력자원의 증대를 바탕으로 한 소수자 연대의 네트워크 전략과 결합되어야 그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스위처의 전략이 실제로 성공하려면, 애초에 네트워크의 프로그램을 짜는 과정에서부터 관여해야 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V. ‘체제’ 차원의 네트워크 권력

네트워크를 체제 차원에서 보면, 네트워크 권력은 ‘네트워크 자체가 행사하는 권력(power of the network)’으로 이해된다. 네트워크라는 체제에 상호작용의 규칙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심어 넣는 ‘프로그래머’의 권력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권력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 프로그램이 짜이고 나면 네트워크는 그 프로그램의 매뉴얼에 입각해서 작동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하위 네트워크들은 각기 역할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일견 중립

적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누군가의 이해관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Stalder, 2006, p.133). 실제로 많은 경우 네트워크의 프로그램에는 네트워크를 교묘한 방식으로 통제하려는 프로그래머의 의도가 개입되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명시적(또는 암묵적) 의도를 초월하여 '망(網)' 자체가 행사하는 권력, 달리 말해 네트워크에 스며들어 있는 일종의 비인격적(impersonal) 권력의 형태로 프로그램이 작동하기도 한다.

프로그래머의 권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을 따라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드들의 선택은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마치 단독후보에 투표하는 것처럼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일 경우가 많다. 이렇게 권력이 체제 내적으로, 그것도 비인격적인 형태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여간해서 그 실체를 포착해서 저항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지구화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불공정한 결과를 야기할 중요한 선택들이 당사자들도 모르게 미리 프로그램의 형태로 내재화되어 있는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은 각 노드들이 속해 있는 네트워크 자체가 움직이는 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어서 그 네트워크에서 탈퇴하지 않는 한 싫더라도 받아들여야 할 경우가 많다. 게다가 이러한 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작동하는 과정에서 각 노드들은 프로그램이 산출한 불공정한 결과가 편향된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라, 원래 스스로 원했기 때문이라고 믿게 되는 메커니즘마저도 작동한다.

이러한 프로그래머의 권력은 기술적인 형태의 코드나 프로토콜 또는 기술표준의 형태를 띠기도 하고, 아니면 제도나 법 또는 사회적 규범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원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국제정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종류의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네트워크에 심어 넣는 능력은 패권세력만이 가지는 일종의 특권이였다. 20세기 후반 이래 세계정치에서도 패권국으로서의 미국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담당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김상배, 2004).

먼저, 기술적인 차원에서 이해된 프로그래머의 권력은 기술경쟁의 '게임의 규칙'에 해당하는 기술표준이나 프로토콜을 장악하는 데에서 우러나온다(Galloway, 2004). 미국의 IT기업들은 세계 IT산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표준을 수립하고 그 흐름을 주도하여 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세계 정보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의 패권이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플랫폼으로서 이를 프로그래밍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막대한 권력을 안겨주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기술표준을 장악한 노드는 네트워크 전체에서 특별한 위상을 차지하게 되어 일종의 '구조적 권력(structural power)'을 행사하게 된다(Strange, 1994; 김상배, 2007).

둘째, 사회적·제도적 차원에서 이해된 프로그래머의 권력은 네트워크상의 상호작용을 규제하는 제도나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군사·안보나 무역·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도 국제제도의 형성을 주도하였다. 예를 들어, WTO(World Trade Organization) 내의 지적재산권 관련 제도화를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

터넷 거버넌스 분야를 관장하는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의 설립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은 이들 국제제도를 프로그래밍하고 이에 가입하는 회원표준을 설정하는 주도권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권력은 많은 쟁점들이 협상단계에 이르기도 전에 결정이 이루어지는 일종의 '제도적 권력(institutional power)' 이라고 할 수 있다(Sell, 2003).

끝으로, 문화적 차원에서 이해된 프로그래머의 권력은 사회규범이나 세계관의 형성과정에서 발생한다. 20세기 후반 이래 미국의 기업들은 지구 미디어를 통해서 콘텐츠를 생산·배포함으로써 소위 신자유주의적 사회규범과 세계관을 전파해 왔다. 할리우드와 맥도널드, 그리고 스타벅스 등은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문화와 비즈니스 관행을 전 세계로 전파하는 첨병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방식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미국적인 사회규범을 내면화하도록 만드는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이 작동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특정 행위자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고안되지는 않았을지라도 특정한 관례나 담론을 수용함으로써 정체성이 재구성되는 일종의 '구성적 권력(constitutive power)' 을 떠올리게 한다(Faubion, ed., 2000; Foucault, 2007).

그렇다면 이상에서 언급한 세 가지 차원의 프로그래머 권력이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의 속성은 어떻게 활용되는가? 앞서 언급한 대로 패권세력에게 최선의 조합은 높은 개방성과 낮은 호환성, 그리고 낮은 유연성을 교묘하게 섞어서 활용하는 것이다. 먼저, 기술의 프로그래머라는 관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배표준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개방표준을 유지하면서도 소스코드(source code)에 대한 소유와 통제를 주장하는, 소위 '개방과 소유(open-but-owned)의 전략' 을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제도의 프로그래머라는 관점에서도 높은 개방성과 낮은 호환성을 복합하는 전략이 동원된다. 예를 들어, WTO와 같은 국제기구들은 자유무역의 원칙을 지킬 용의가 있는 모든 국가들에게 문호가 개방되어 있다. 그러나 무역차별의 관행을 유지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제재를 가하는 비호환성의 원리를 고수한다. 한편, 사회규범이나 가치관의 프로그래머라는 관점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신자유주의적 규범과 가치관은 개방적이지만, 이에 익숙하지 않은 측에서 받아들이기에는 호환성의 비용이 많이 든다. 게다가 기술이나 제도의 프로그래밍과 비교해서 볼 때, 규범과 가치의 프로그램은 그 응집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패권세력의 프로그래머 권력에 대항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프로그램의 태생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 구도 자체의 변혁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항세력의 입장에서 전체 프로그램을 새롭게 짚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항세력이 기성 프로그램의 빈틈을 타고서 틈새시장을 구축하는 하위 프로그램을 디자인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아무리 정교하게 디자인된 패권세력의 프로그램이라도 네트워크 전체의 이해관계를 100% 만족시키는 보편표준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틈새시장의 전략은 패권세력이 깔아놓은 프로그램의 플랫폼

위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짜는 전략과도 통한다. 또한 이러한 소수표준의 응용프로그램들은 앞서 언급한 소수자연대의 네트워크 전략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윈텔의 운영체제 플랫폼 위에서 작동하는 로컬 응용프로그램을 떠올릴 수 있는데, 한국어 사용자들의 성원을 받으며 마이크로소프트의 MS워드로부터 로컬 시장을 사수하고 있는 한글 워드프로세서인 '아래아한글'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대항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 여전히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패권세력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의 규범적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물론 기술·제도·문화의 영역을 넘나들며 개방성과 호환성 및 유연성이라는 네트워크의 속성을 활용하는 복합전략이 채택된다. 예를 들어, 대항세력은 높은 개방성의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일종의 '대항적 개방성'이라고 할 수 있다. 리눅스(Linux)와 같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항하는 공개 소프트웨어 운동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마찬가지로 위키피디아처럼 인터넷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대중협업의 실험도 이러한 대항적 개방성을 특징으로 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대항적 개방성은 패권세력의 프로그램으로 하여금 높은 유연성의 수용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 대항세력으로부터 나오는 재(再) 프로그래밍에 대한 요구는 지배 네트워크의 근본원칙이나 기본철학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의 요구를 바탕으로 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항세력 네트워크도 일정한 세(勢)를 유지할 때까지는 패권세력이 운영하는 지배 네트워크와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체제 내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고충이 있다.

네트워크의 프로그래밍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만이 아니라 제도나 규범과도 연관된다. 예를 들어, WTO의 진행과정에서 등장한 반(反) 지구화 운동은 제도와 규범의 차원에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가 제시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한 대항적 프로그래밍을 요구하는 사례이다. 이러한 요구의 밑바탕에는 좀 더 공정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디자인함으로써 좀 더 바람직한 세계질서를 구축하자는 규범적인 발상이 담겨 있다. 단순한 효율성과 생산성의 증대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이 보장되는 프로그램을 디자인하자는 규범적 가치가 담겨 있다. 사실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과정이 다양한 영역에서 소수자들의 물질적 이익과 문화적 다양성 및 정체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저항의 움직임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최근 인터넷의 확산은 이러한 움직임이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대항담론을 형성하고 행동의 공조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토양을 제공하였다. 2002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차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에서 미국 주도의 정보화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던 시민사회 그룹의 조직화는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이다.

기술·제도·가치의 면에서 본 한국의 대항적 프로그래밍 전략은 가능할까? 구체적인 사례들을 돌아보면,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프로그래밍 능력을 기대케 하는 사례들이 없지 않다. 기술 영역에서만 보더라도 한국의 IT기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등과 같은 미국 기업들의 공세로부터 워드프로세서와 인터넷검색 분야의 틈새시장을 지켜왔다. 최근 IT분야에서 발견되는 동아시아 대항담론은 지역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한 독자적 응용 프로그래밍의 시도를 부추기고 있

다.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차세대 인터넷과 이동통신, 다국어 도메인과 공개 소프트웨어 분야의 협력은 미국 주도의 세계지식질서에 대항하는 기술과 제도의 프로그래밍을 엿보게 한다. 아울러 규범과 가치의 프로그래머라는 차원에서도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중국은 신자유주의적 발전경로가 아닌 대안적 발전담론을 생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움직임들은 아직까지 미국이라는 지배표준의 메타 프로그램 하에서 국지적인 실험을 하는 데 그치고 있다.

Ⅶ. 맺음말

이 글은 전통적인 국제정치의 권력이론이 상정하고 있는 노드 중심의 물질적 권력론을 넘어서는 시도로서 네트워크 권력의 개념을 새로이 제시하였다. 여기서 네트워크 권력이라 함은 노드 자체의 속성이나 노드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아니라 노드들 간의 ‘관계’ 즉 네트워크에서 비롯되는 권력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네트워크 권력은 노드의 내재적 속성이 아니라 노드 밖에 존재하는 외재적 요소에서 비롯되는 권력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네트워크 권력을 완전히 초(超)노드적인 맥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네트워크 권력의 기반이 되는 외재적 요소라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노드 자체에 기반을 두고 그들 간의 관계적 맥락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네트워크 권력은 노드의 내재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를 제약하는 구조로서의 작동하는 외재적 요소까지도 동시에 담아내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네트워크 권력의 개념을 분석적인 차원에서 단위와 과정 및 체제의 세 차원에서 작동하는 네트워크와 스위치 및 프로그래머로서 파악하였다. 네트워크 세계정치의 현실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형태의 네트워크 권력은 복합적으로 얽혀서 작동한다. 예를 들어, 매력자원을 보유하고 가능한 한 많은 노드를 끌어들이 ‘세(勢)’를 불리는 노드(또는 네트워크)가 네트워크의 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네트워크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노드가 자신을 ‘통(通)’해서 네트워크를 작동케 하는 스위치가 되기에 유리하다. 대체적으로 네트워크나 스위치의 역할을 담당하는 노드가 네트워크 자체의 프로그래밍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프로그래밍된 네트워크가 그 프로그래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망(網)’의 권력을 발휘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복합적인 네트워크 권력을 누가 주도하느냐는 현실 세계정치의 지대한 관건이 아닐 수 없다. 패권세력이나 대항세력 모두에게 네트워크 권력을 행사할 기회는 열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패권세력이 네트워크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은 사실이다. 즉 기존의 노드형 물질적 권력에 기반을 두고 네트워크나 스위치 또는 프로그래머로서의 권력을 교묘한 방식으로 재생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과정에서 패권이 행사하는 네트워크 권력의 전략은 높은 개방성과 낮은 호환성, 그리고 낮은 유연성의 조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정보화는 이러한 네트워크 권력의 메커니즘에 의존하여 좀 더 보

이지 않는 형태로 기존의 패권을 재생산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마찬가지로 패권세력에 대항하는 세력도 네트워크 형태의 전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대항세력이 초점을 두는 것은 패권세력이 마련한 프로그램의 규범적 타당성에 대한 도전이다. 그렇다고 대항세력이 패권세력을 능가하는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배 네트워크와는 상이한 대안적 채널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반론을 제기하는 효과는 크다. 예를 들어, 최근 인터넷의 시대를 맞이하여 글로벌 시민사회 운동이나 공개 소프트웨어 운동, 그리고 정책지식의 생산을 둘러싼 글로벌 지식네트워크 등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외에도 환경, 여성, 인권 등의 분야에서 패권세력의 규범적 기반을 파고드는 대항 네트워크의 시도들이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배 네트워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구조적 편향을 지적하거나 좀 더 소수자의 이익에 맞는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전략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머리말에서 제기한 것처럼 한국처럼 패권국이 아닌 중견국이 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 권력의 내용은 무엇일까? 19세기 국제정치 현실에서 도출된 선부른 균형자의 논의가 아닌 21세기 세계정치의 현실에 걸맞은 네트워크이자 스위치이며 프로그래머의 전략을 발휘할 가능성은 있을까?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네트워크와 프로그램을 구축하거나 또는 미국과 중국의 양대 네트워크 사이에 영향력 있는 스위치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이 글에서 논한 소수자 연대의 ‘하위 네트워크(sub-networker)’ 전략이나 ‘대안적 스위치(alternative switcher)’ 전략, 또는 ‘응용 프로그래머(application programmer)’ 전략 등을 구사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19세기적인 ‘균형의 발상(balancing mind)’을 넘어서는 21세기적인 ‘네트워크의 발상(networking mind)’을 갖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네트워크 전략의 비전과 내용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상배. 2004. “정보화시대의 지식구조: 수잔 스트레인지의 개념화를 넘어서.” 『한국정치학회보』 38(3), pp.255-276.
- 김상배. 2007. 『정보화시대의 표준경쟁: 원텔리즘과 일본의 컴퓨터산업』 한울.
- 김상배. 2008.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모색: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세 가지 가정을 넘어서.” 미발표 원고.
- 김상배. 외. 2008. 『지식질서와 동아시아: 정보화시대 세계정치의 변환』 한울.
- 김상배. 편. 2008. 『인터넷권력의 해부』 한울.
- 김용학. 2007. 『사회 연결망 이론』 개정판, 박영사.
- 대통령비서실. 2006.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집』 제3권: 2005년 2월 1일-2006년 1월 31일.
- 민병원. 2005. 『복잡계로 풀어내는 국제정치』 삼성경제연구소.
- 뷰캐넌. 마크. 2003. 『넥서스: 여섯 개의 고리로 읽는 세상』 세종연구원.
- 손열. 편. 2007. 『매력으로 엮는 동아시아』 지식마당.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편. 2008. 『지식네트워크의 세계정치』 〈세계정치〉 29(1). 기획특집. 논형.
- 왓츠. 던컨. 2004. 『Small World: 여섯 다리만 건너면 누구와도 연결된다』 세종연구원.
- 평화포럼21. 편. 2005. 『매력국가 만들기: 소프트 파워의 미래전략』 21세기평화재단 평화연구소.
- 하영선. 2005. “국제정치 큰일 났다.” 『중앙일보』. 3월 25일자 칼럼.
- 하영선 · 김상배. 편. 2006.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 을유문화사.
- Arquilla, John, and David Ronfeldt. eds. 2001. *Networks and Netwars: The Future of Terror, Crime, and Militancy*. Santa Monica, CA: RAND.
- Barabási, Albert-László. 2002. *Linked: The New Science of Networks*. Cambridge, MA: Perseus Publishing.
- Barnet, Michael and Raymond Duvall. eds. 2005. *Power in Global Governance*.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ck, Ulrich. 2005. *Power in the Global Age: A New Global Political Economy*. Cambridge, UK: Polity.
- Benkler, Yochai. 2006. *The Wealth of Networks: How Social Production Transforms Markets and Freedom*. New He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Berenskoetter, Felix and M. J. Williams. eds. 2007. *Power in World Politic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Braman, Sandra. 2006. *Change of State: Information, Policy, and Power*. Cambridge and London: The MIT Press.
- Castells, Manuel. 2000a.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2nd edition. Oxford: Blackwell.
- Castells, Manuel. 2000b. *End of Millennium*. 2nd edition. Oxford: Blackwell.
- Castells, Manuel. 2004a. *The Power of Identity*. 2nd edition. Oxford: Blackwell.
- Castells, Manuel. 2004b. "Informationalism, Networks, and the Network Society: A Theoretical Blueprint." in Manuel Castells. ed. *The Network Society: A Cross-cultural Perspective*. Cheltenham, UK: Edward Elgar, pp.3-48.
- Chesters, Graeme, and Ian Welsh. 2006. *Complexity and Social Movements: Multitudes at the Edge of Chao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Diani, Mario and Doug McAdam, eds. 2003. *Social Movements and Networks: Relational Approaches to Collective Action*.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aubion, James. ed., 2000. *Michel Foucault: Power*. New York: New Press.
- Foucault, Michel. 2007. *Michel Foucault: Security, Territory, Population*. New York: Palgrave.
- Galloway, Alexander R. 2004. *Protocol: How Control Exists after Decentralization*. Cambridge, MA: MIT Press.
- Gill, Stephen. 2003. *Power and Resistance in the New World Order*.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Grewal, David Singh. 2008. *Network Power: The Social Dynamics of Globalization*.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Hardt, Michael and Antonio Negri. 2000. *Empir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ardt, Michael and Antonio Negri. 2004. *Multitude: War and Democracy in the Age of Empire*. New York: Penguin Press.
- Isaac, Jeffrey C. 1987. "Beyond the Three Faces of Power: A Realist Critique." *Polity*. 20(1), pp.4-31.
- Jervis, Robert. 1997. *System Effects: Complexity in Politics and Social Lif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eohane, Robert O. and Joseph S. Nye. 1977. *Pow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in Transition*. Boston: Little, Brown.
- Khagram, Sanjeev, James V. Riker, and Lathryn Sikkink. eds. 2002. *Restructuring World Politics: Transnational Social Movements, Networks, and Norms*. Minneapolis and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Larner, Wendy, and William Walters. eds. 2004. *Global Governmentality: Governing International Spaces*. New York: Routledge.
- Latour, Bruno. 2005. *Reassessing the Social: An Introduction to Actor-network Theory*.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aw, John and Annemarie Mol. eds. 2002. *Complexities: Social Studies of Knowledge Practices*. Duke University Press.
- Nye, Joseph S. 2004.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 Rosenau, James N. 2003. *Distant Proximities: Dynamics beyond Globaliza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ell, Susan. 2003. *Private Power, Public Law: The Globa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alder, Felix. 2006. *Manuel Castells*. Cambridge, UK: Polity.
- Strange, Susan. 1994. *States and Markets. Second Edition*. London and New York: Pinter.

regime to build environmental regime in Northeast Asia.

Key words: scientific uncertainty,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roblems, game theory, repeated game

The World Politics of Network Power: Beyond Traditional Theories of Power in International Politics

Sangbae Kim

In the traditional theories of international politics, the concept of power has been understood in terms of material resources mainly possessed by the nation-states as major actors in international politics. Only with this concept of “actor-based material power,” however, we cannot grasp the nature of power politics that are transforming in the age of networks. In this context, this paper relies on the “network theory,” which has been presented in the field of natural and social science, and attempts to elicit some clues of an easy-but-concise concept of power in the age of networks. This paper suggests “network power” as a new concept of power for understanding world politics in the 21st century. The concept of network power does not predicated on the properties of nodes themselves or the resources that nodes possess. Rather, network power means the power originated from the relations among nodes - i.e., networks. This way of understanding power from the network perspective is very useful in capturing both dimensions of agent-based and structural power in the 21st century. In this context, this paper analyzes the complex aspects of network power at the three levels of actor, process, and system.

**Key words: Network Power, World Politics, Globalization, Informatization,
Power Transformation, Theories of International Politics**